

# 비정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변길자  
(제주대학교)

Byoen, Gil-ja. 2004. How to Improve Extracurricular English Education Programs.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1), 81-94.

Recent great demand for English education has made schools and private English education institutes attempt various kinds of English teaching methods. With this demand in mind,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help Korean colleges provide better extracurricular English education programs. The suggestions include the contents and operational way of English Education programs, the management of teachers and student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review of class through questionnaires after the end of a program session. When these suggestions are considered to provide a better extracurricular English education program, it is likely that the education will not only be useful for students but also reduce trials and errors in the process of program operation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English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 1. 서 문

국제화·자유화·개방화의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자유도시나 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 영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영어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는 취업문제가 당면과제인데 각 기업체는 입사시험에서는 지원자들의 영어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인된 영어 자격시험인 토익이나 토플 그리고 텡스 시험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대학시절동안 이러한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교 소속 외국어교육관이나 아니면 사설 영어학원을 이용하면서 공인 영어시험점수나 회화능력, 작문능력, 듣기능력을 높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뜻대

다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로 가서 영어 공부를 해야 영어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단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그러나 그들은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으면 갑자기 영어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전 준비없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갖추지 않고서 외국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 왜 학생들이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어학연수를 떠날 수밖에 없을까? 외국에 있는 어학연수기관은 우리나라의 어학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아주 크게 다른가, 아니면 교사들의 교수법이나 태도와 연관된 자질에서의 차이가 있는가, 또는 어학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시간과, 수업의 양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시설 면에서의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기관에서의 영어교육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짐은 물론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영어교육기관의 비정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장에서는 캐나다의 어학연수기관들이 제공하는 영어교육프로그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1장은 서론, 제4장은 결론이 되겠다.

## 2. 외국인과 이민자를 위한 캐나다의 영어교육프로그램

필자는 캐나다 어학연수기관들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론토에서 ESL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교 소속의 어학연수기관과 토론토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설학원,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영어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민자들을 위한 어학연수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필자가 캐나다의 각각의 비정규 영어교육 기관에 참여하면서 직접 느끼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각각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부설 어학연수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 수, 교사들의 자질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학교 소속 어학연수기관인 경우, 보통 집중영어강좌는 8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반강좌는 4주 프로그램이었다. 먼저, 집중영어강좌인 경우는 크게 두 강좌로 나누어져서 학생들이 회화, 듣기, 말하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인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9시부터 1시까지 회화, 듣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주 2회인 화요일과 목요일은 독해나 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받는다. 반면에 독해나 쓰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9시부터 1시까지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하는 방법과 작문을 할 때 주의할 점, 예를 들면 구두점이나 시제, 다양한 문법구조를 이용한 작문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말하기와 듣기에 초점을 두는 강좌를 받는다.

따라서 두 집중강좌 모두 영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모두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시간 배분만 달랐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수준을 바탕으로 반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루 날짜를 정해서 토익유형의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 편성을 정확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집중영어 강좌를 받는 학생들은 오후에 자신의 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보충학습은 주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행된다. 선택과목으로는 어휘학습, 영화감상, 뉴스청취, 토플 실전문제풀이, 토플시험용 작문연습, 캐나다에 있는 관광지 여행 등이 있다.

집중영어강좌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영어교수법을 전공했으며 학생들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다. 그 예로 학생들 과제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들어서 내용을 요약하고, 느낀 점과 듣는 도중에 모르는 어휘나 표현을 적는 과제가 있었다. 과제를 제출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문법상의 오류나 틀린 표현들을 정확하게 교정해서 돌려준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학생들이 테이프에 녹음해서 교사에게 주면 그 교사는 역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학생들의 문법상의 오류나 발음을 교정해서 동일한 테이프에 녹음해서 돌려준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자신이 말했던 문장에서 문법적인 오류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발음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생각된다. 예를 들면 교사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각기 다른 내용의 테이프 4개를 4그룹의 학생들에게 준다. 보통 대학 어학기관은 한 반에 학생수가 15명을 넘지 않게 하므로 3-4사람씩 4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서로 답을 비교하고 토론하면서 수정해 나간다. 또한 교사는 드라마를 테이프에 복사해서 처음에 소리를 틀어주지 않은 채 드라마를 보게 하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그 등장인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서로 말하게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드라마를 이번에는 들으면서 보게 해서 이전에 학생들의 듣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말한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어휘능력을 동시에 신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 교사는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controversial topic), 예를 들면 인간복제 문제나 안락사 문제와 같은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서 형식에 맞추어서 작문을 하게 한다. 예를 들면, 먼저 도입부에는 작문할 주제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지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그 주제를 지지하는 생각들(supporting ideas)을 최소한 2개 이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교사들은 이 작문숙제를 받고 문법적인 오류, 논리적인 문제점, 구두점에 관한 오류, 단락과 단락사이의 비약적인 논리에 대한 오류들을 교정해서 돌려준다. 또한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게 해서 발음 교정과 표현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준다.

그리고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눈 다음 교사는 학생들에게 10가지 단어카드를 주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단어를 설명하고 맞추는 단어 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표현능력과 어휘능력을 향상시켜주었으며 영어듣기에 필요한 요소인 추측(guessing)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광고하는 녹음을 듣고 어떤 광고인지를 맞추는 게임, 또한 학생들끼리 작문한 것을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비교하면서 문법을 교정시켜주고 단락과 단락사이의 논리적인 비약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교사는 다시 학생들끼리 토론해서 교정한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지적해준다.

교재나 강의 내용 역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사에 의해서 조정되었다. 낮은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역할놀이(role play)에 초점을 두어서 회화수업이 진행되었고, 높은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는 뉴스청취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한다든지, 하나의 기사(article)를 정해진 빠른 시간 내에 읽게 한

거리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짧고 정해진 의문문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고급수준의 학생들의 경우는 뉴스 청취한 후 작문하기 등 그 수준에 맞게 과제가 주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부설 어학연수기관에서 시행되는 집중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제2언어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수업방식, 엄격한 학생관리, 학생들 수준에 맞는 적절하고 많은 과제 등 장점들이 많았다. 한 예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제를 자세하게 교정, 수정하고 학생들이 고급단계로 올라갈 때 반영하며 모든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대학교 어학기관자체에서 시행하는 단계별 시험을 치러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고급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대학부설 어학연수기관의 단점은 다른 영어교육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사설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 집중강좌도 많이 수강하고 있었다.

## 2.2. 사설학원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영어집중강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를 보충하기 위한 선택강좌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부설 어학연수기관과는 달리 사설학원은 9시부터 1시까지 시행하는 영어집중강좌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 요소 중 어떤 요소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영어 강좌는 전반적으로 대학 소속의 어학연수기관에 비해서 비체계적이고 과제도 거의 없었으며 수업내용 면에서도 부신했다. 학생들의 단계를 평가하는 시험도 토익처럼 독해, 문법, 듣기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대충 문법을 위주로 한 시험이어서 학생들의 단계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는 문법에 강하지만 듣기나 말하기에 약하고 유럽권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는 문법에 약하지만 말하기나 듣기에는 강하기 때문이다. 사설학원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던 일부 한국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비용에 비해 얻는 게 별로 없다는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 2.3. 이민자 영어교육기관

캐나다에는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 가장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영어 교육기관에 참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기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2시30분까지 집중강좌가 실시되었다. 중간 12시부터 40분 정도는 점심시간이다.

집중강좌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갈 이민자들을 위한 토플(1), 토플(2), 그리고 말하기를 강조한 회화(1)와 회화(2), 그리고 작문을 강조한 작문(1), 작문(2)가 있다. 이 기관에서도 학생들의 단계를 나누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문법위주이고 작문문제가 하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고급수준에 가서 강의를 듣기를 원한다면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대부분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학생들은 한 반에 25명 내지 30명 정도였으며 모든 강좌기간은 8주 단위이다.

토플(1)강좌의 경우는 매일 하나씩 문법주제를 정해서 문법설명과 실전문제 풀기, 답 설명, 토플작문연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토플작문연습인 경우는 30분 내에 형식에 맞추어서 얼마나 자기 의견을 잘 기술했는지에 따라서 교사가 점수를 주고 문법적인 오류를 교정해 주었다. 토플(2)강좌의 경우는 토플(1)강좌보다 고급수준의 학생들이 수강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지식은 모든 수강학생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가정해서 문법적인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실전문제풀이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강좌에서도 토플작문연습이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고 문법을 교정시켜서 학생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토플작문연습을 잘한 학생의 작문을 읽게 함으로써 토플작문연습을 잘하지 못한 학생들이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어떻게 작문을 하면 토플작문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회화(1)과 회화(2)는 각기 학생들 수준에 따라 문법설명과 필수적인 관용어

내에 작문을 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교사들은 문법적인 교정을 해주고 점수를 제시해서 돌려준다. 그리고 영어수준의 낮은 이민자들을 위한 강좌인 작문(1)과 작문(2)는 문법에 초점을 두고 주로 그날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작문을 하게끔 유도한다. 역시 교사는 학생들이 작문을 채점하고 문법 오류를 교정시킨 다음 돌려준다.

이민자 영어 교육기관은 대학 영어 교육기관과 사설학원에 비해서 집중영어강좌가 문법에 중점을 두어 강의가 진행되었고 수강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토플강좌나 작문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회화는 회화(1), (2)강좌에서만 조금 비중을 두는 정도였다. 또 이민자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수강할 수 없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 그 강좌에는 회화, 작문, 문법과 회화, 토플 등이 제고되고 있었다.

저녁프로그램의 강좌내용도 오전 집중강좌 프로그램의 수업내용과 비슷했지만 오전 강좌에는 없는 문법과 회화강좌는 먼저 교사가 하나의 문법주제 예를 들면 동명사에 관해서 문법적인 설명을 하고 동명사와 관련된 영문법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 교사가 토의할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동명사를 이용할 수 있는 문맥에서 동명사를 이용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작문을 해서 교사에게 제출한다. 교사는 역시 문법적인 오류나 표현들을 수정해서 돌려주고 점수를 제시한다. 이러한 교수방법은 문법을 문법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문법을 일상회화나 작문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을 완전히 익히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주중에 강좌를 수강할 수 없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주말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회화와 문법 두 강좌가 있었다. 토요일 강의는 주중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강좌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내용은 주중 프로그램과 동일했다. 이민자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교사들이 학생들 작문을 거의 매일 교정하느라고 고생했고 또한 이민자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게 하거나 직장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어를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복습할 동기부여를 해주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8주 수업기간 중에 약 3번 정도 평가시험이 시행된다. 이 시험결과에

있었지만 수업내용이 너무 문법과 작문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다음 토플성적이 잘 나와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간 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었으며 거의 작문을 습관화시키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말에 따르면 작문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대학이나 사설학원, 이민자들을 위한 집중영어강좌들은 공통적으로 가끔씩 교사들과 같이 여행하는 기회들을 마련해서 외국의 문화들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또한 공공 시설물들, 예를 들면 소방서나 의회, 박물관들을 둘러볼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학습을 제공하기도 했다. 더욱이 가끔씩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외국생활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소개시켜주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강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 2.4. 시사점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의 문화를 습득하고 어학교재에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표현들을 외국인들과 얘기하면서 습득할 수 있다는 점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쓰는 실제 어휘나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서 외국에서 소모되는 경비는 너무 비싸고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마저 조성될 수 있다는 단점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의 영어교육기관은 단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을 국내의 영어교육기관에 붙잡아두거나, 설사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다 하여도 어학연수기간을 기존 보통 1년에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줄이면서 교육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질적인 문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운영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영어교육기관은 영어모국어화자면 자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사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격한 기준 하에 채용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열의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과제 제시와 과제점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준비물로 학생



해야 하겠고 다양한 수업시간을 제공해야 하겠다.

또한 교실수업이외에 다양한 야외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어휘나 표현법을 익히게 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수업이 끝난 후에 수강한 강좌에 대해서 유익했던 점과 수정해야할 점, 그리고 바라는 점, 교사의 수업태도나 자료의 적절성들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져서 더 나은 강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점도 중요하다 하겠다.

대체로 외국에서 만난 한국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받은 영어교육프로그램보다 현지에서 받은 영어 강좌가 훨씬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의 외국어교육기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의 외국어교육기관은 영어교육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익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발하고 적절한 내외국인 강사의 채용 및 학생관리 측면 등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 어학연수를 떠났어도 수업 중에 받는 영어 강좌만 가지고는 회화능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어학연수 학생들은 영어모국어화자들이 참석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해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몇몇 어학연수학생들은 한국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의 모국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향상하지 못한 채 고국에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의 영어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격 있는 교사들의 선정, 그리고 다양한 수업시간을 제공해서 단지 외국에 연수 가는 것은 영어권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정도로 학생들을 인식시켜서 필요 없이 연수기간을 늘리지 않고 기간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최상의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노력해야하겠다.

### 3. 국내 비정규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향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체계적이며

사이의 연계성이나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없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어교육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어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필자는 한국 내 대학부설 외국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프로그램들을 조사했으며 또한 캐나다에 어학연수 온 한국학생들과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비정규 영어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영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 영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토익, 그 중에서도 문법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에 관련된 문제만 집중해서 풀기 때문에 토익시험 볼 때 문법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점수는 약간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문법을 이용해서 회화를 한다든가 작문을 한다든가 독해를 하라고 할 경우 전혀 배운 문법을 활용할 수 없어서 단편적인 문법지식에 한정된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지금의 한국 실정에서 토익점수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운 문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문법을 활용해서 회화를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문법을 이용해서 작문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문법이 나오는 문장을 들려주거나 읽게 함으로써 왜 그 특정문법이 필요한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고 문법과 더불어 영어 능력의 필수요소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교육프로그램이 하루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동안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하루 종일 영어와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생들이 말하는 외국연수의 가장 큰 잇점은 하루 종일 영어와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영어프로그램이 많은 시간대에 제공되었고 영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국보다는 월등하게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여건상 힘들겠지만 하루 중 가능한 한 많은 시간동안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국어교육관내에 영어 전용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는 영어로만 말하고 또한

또한 학생들 스스로도 친구끼리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영어로 마하기 연습을 함으로써 영어 말하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친구 끼리나 동료끼리의 대화가 외국인과의 대화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친구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대화하기가 쉽고 이야기 거리가 많아서 대화가 끊기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과제이다. 과제는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서 제시되어야 하며 학습의 동기화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뉴스나 그 외 방송, 영화와 같은 것을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쓰게 하는 과제는 듣기학습에 자극을 줄 것이고, 작문숙제는 매일 작문을 습관화하는데 동기화가 될 것이다. 또한 말하기 학습을 유도할 경우는 테이프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녹음해서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영어 말하기를 습관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제를 철저히 수정, 교정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되돌려주어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이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학습하게끔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넷째, 교사와 프로그램의 연관관계이다. 회화강좌라고 해서 꼭 외국인 교사만 강의할게 아니라 초급자인 경우는 오히려 한국인 교사가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문법 강좌나 독해강좌는 한국인 교사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 고급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외국인 교사들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다섯째, 현장학습의 중요성이다. 한국에서는 여건상 단지 영어를 교실에서만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교사들과 학생들이 일주일마다 다른 장소를 방문하면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교실수업의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장소에 따른 다양한 어휘나 표현법을 익힐 수 있고, 영어 교과서에서는 학습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 맞는 대처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연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접하게 하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섯째, 학생수준별 반 편성이다. 한국의 어학기관에서는 회화강좌인 경우에만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준별 반 편성을 하는데 그 외 문법이나 영작 독해 강좌도 철저한 수준별 반 편성을 해야 한다.

일곱 번째, 더 나은 영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좌가

에서 나뉘던 점 등등을 설문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다. 캐나다의 경우 대학 부설 어학 연수기관인 경우는 학교에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었다. 예를 들면 외국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토플성적에 관계없이 그 학교 내 어학연수기관에서 수강한 강좌에서 받은 성적이나 가르친 교사의 추천서로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재정적 지원도 충분해서 영어학습용 다양한 학습자료나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행정적,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유익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4. 결 론

영어는 이제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생존 수단이 되어 가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특정 부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컴퓨터를 통한 서신 교환, 해외여행, 국내에서의 외국인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서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은 물론 듣고 말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의 영어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사교육 기관을 찾거나 아니면 돈을 싸들고 외국으로 영어 연수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비정규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바로 우리 사회에 잠재해 있는 영어 교육의 열기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학의 정규 영어교육은 각 대학에 소속된 학생수의 방대함, 시설의 부족, 많은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불가능 그리고 교수 요원의 부족 및 교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대의 흐름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학의 영어 교육은 비효율적이라는 비

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욕구를 만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의 비정규 영어교육프로그램은 대학의 시설 및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 자체 내의 기숙사 및 강의실들을 방학 기간에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어떤 대학들은 외국어 교육관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고작 정규수업 시설로만 이용하거나 아니면 몇 과목의 비정규 외국어 교육만을 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 영어교육프로그램은 이런 유휴시설들을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학 내에서의 외국어 학습 열기를 고조시키는 물론 대학 내 유휴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 인용문헌

- 김덕기. 1988. "영어 교사 양성의 현실적 문제와 이상적 방향." 『영어교육』 36.  
 박경자의 30인. 1998. 『영어교육입문』. 박영사.  
 박효명, 이홍수. 1995. "대학영어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구상." 『전남대 학술재단 과제 연구』.  
 배두본, 이홍수. 1995. 『세계화에 대비한 조기 및 실용영어 교육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양도원. 1994. "외국의 외국어교육 실태-독일." 『교육진흥』.  
 이계순. 1983.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개선방안." 『영어교육』 26.  
 이영자. 1990.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교수방법의 연구." 『영어교육』 40.  
 이한빈. 1980. "미래가 요구하는 영어교육." 『영어교육』 19.  
 이혜란. 1995. "영어 조기교육 현황조사 및 방향." 『응용언어학』 8.  
 최진황. 1987. "국제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외국어 교육." 『광장』 162.  
 홍성면. 1990. "영어테스트와 세계의 언어교육." 『영어교육』 40.  
 홍종선. 1987.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교육방안." 『영어교육』 33.  
 Byun Gil-ja. 2002. "The Development of Models for Intensive English Educ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18-2., 79-111.  
 Dornyei, Z. 1994. "Motivation and Motivating in the Foreign-Language Classroom." *Modern Language Journal* 79.  
 Ely, C. M. 1986.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 Descriptive and Casual Analysis." *Modern Language Journal* 70.  
 Johnson R. K. 1989.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ng, M. H. 1989. "Task, Group, and Task-Group Interactions." *University of Hawaii Working Papers in ESL* 8.
- Nunan, D.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olsky, B. 1989. "Conditions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London and New York: Longman.

변길자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

전자우편: [byungilja@hanmail.net](mailto:byungilja@hanmail.net)

접수일자: 2004년 9월 8일

게재결정: 2004년 9월 17일